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한국사]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사는 수능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 아주 쉬운 문제가 6월에 비해 적어졌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항들이 다수 채워졌다. 2014학년도 수능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9월 모평 문항 분석을 통해 다가올 수능 한국사를 준비해야겠다.

한국사는 전근대와 근현대로 구성이 되는데 전근대 파트는 6문항이 나왔고, 근현대 파트에서 14문항이 나왔다. 평가원에서 던진 분명한 메시지는 전근대 파트는 쉽게, 근현대 파트는 어렵게 문항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올해 6월 모평에서도 확인된 바였다.

EBS 연계율 70%는 정확하게 지켜졌다. 연계 문항도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서 이루어졌기에 쉬운 문제만 연계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교정시켜 줄 수 있었다.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 하나.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를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 둘. 전근대 6문항, 근현대 14문항이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근현대에서 잡았다.
- 셋.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이 높은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②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각 단원별로 고루 출제되었다. 전근대 파트에서 6문항, 근현대에서 14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위에서 밝혔는데 이는 교육 과정에 준해서 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 교육과정은 근현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전근대 파트에서는 선사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전기에서 각 1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2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듯이 전근대에서 각 시대별로 고르게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현대 파트에서는 개항기와 현대사에서 각 5문항, 일제 강점기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근현대 파트에서도 고르게 단원별로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단원에 집중되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해당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파트	문항 수
전근대	선사 시대	1
	고대 시대	1
	중세 시대	1

근·현대	근세 시대	1
	근대 태동기	2
	개항기	5
	일제 강점기	4
	현대	5

2. 난이도

<2012년 6월, 9월 모의평가/ 2013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2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한국사(근현대사)	비슷	비슷	비슷

이 부분은 사실 기준이 없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교육 과정이 바뀐 한국사 과목을 시험보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사와 근현대사로 나뉘어 있었는데 올해 고3은 국사와 근현대사가 합쳐진 한국사를 본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한국사 역시 근현대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 근현대사와 비교해서 대략적이나마 비교할 수 있겠다.

작년 6월과 9월의 근현대사와 이번 한국사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도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문항이 작년 수능에서 2문항 나왔고, 이번 9월 모평에서도 2문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작년 수능과 수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고난도 문항들은 적절하게 안배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문항이 많았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세밀한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항이나 다소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도 있었다.

① 파트별 세부 난이도

6월 모의평가에서 전근대 시기는 평이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다. 6월 모평과 차이가 있다면 근대 태동기(조선 후기) 문항이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6월 모평에서는 조선 후기 임술 농민 봉기 파트가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평이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다.

근현대 파트에서는 역시 현대사에서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선지를 이용해 참신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문제의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형식만 참신했지 내용은 이제까지 시험에서 늘 나오는 내용들이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본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낯설음을 제공하여 변별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고난도 문제

• 9번 - 이번 9월 모평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무슨 말을 묻는지 전혀 감이 오질 않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은 기본이고, 국어적 능력까지 요구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 우선 갑 오개항에서 은본위 화폐 제도 실시와 재정의 일원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 문제에서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까지 알아야 제시된 자료의 내용과 연결이 가능하다.

• 13번 - 전통적으로 평가원에서 변별을 잡자고 들어오는 문항이다. 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논란이 많다. 연도를 외워야 푸는 문제다 아니다와 같은 논란이다. 하지만 늘 평가원은 이렇게 답한다. 평가원 한국사 문제에서 연도를 외워야만 푸는 문제는 없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풀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 놓았다고. 실제로 맞는 말이다. 이 문항도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은 아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단체가 대한 자강회임을 알 수 있다. 대한 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다가 보안법이 적용되면서 해산된다. 고종의 강제 퇴위 직후 정미 7조약이 체결된다. 정미년이다. 1907년 정미 7조약은 거의 고유명사화되어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보상 운동을 떠 올리면 흐름 속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③ 신유형 문제

• 18번 - 평가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음이 느껴진다. 늘 6.25 전쟁은 물어보는 패턴이 비슷한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료를 가지고 6.25 전쟁을 물어보고 있다. 맥아더의 원폭 투하와 관련된 사료인데 이런 사료는 이제까지 평가원 문항에서 보지 못했다. 학생들이 사료 분석을 잘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 번호	연계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1	문항 변형	수능완성 한국사	p.10	2번
2	문항 변형	수능특강 한국사	p.46	3번
3	자료 및 지문	수능완성 한국사	p.153	3번
4	자료 및 지문	수능특강 한국사	p.26	3번
5	문항 변형	수능특강 한국사	p.62 p.62	1번 2번
7	자료 및 지문	수능완성 한국사	p.48 p.48	5번 6번
8	개념 및 원리	수능특강 한국사	p.83	2번
9	개념 및 원리	수능특강 한국사	p.89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12	개념 및 원리	수능특강 한국사	p.153	건국 준비 활동
13	자료 및 지문	수능특강 한국사	p.98	대한자강회 취지서
14	문항 변형	수능특강 한국사	p.157	1번
15	개념 및 원리	수능특강 한국사	p.180	4·19 혁명과 장면 정부

16	개념 및 원리	수능특강 한국사	p.135	무장 독립 전쟁
20	문항 변형	수능완성 한국사	p.162	20번

② 체감 연계도

한국사에서 출제한 20문항 중 EBS 수능 특강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계율은 70%이다. 연계 유형도 EBS 수능 특강 문항의 축소, 변형, 확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특히 사료나 그래프는 거의 그대로 출제되어 학생들에게 주는 체감 연계도는 더욱 높았을 것이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12번, 15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8번, 9번, 12번, 15번, 16번 문항 5개가 출제되었다. 12번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6월 모평에서도 출제된 같은 주제 범위 내에 있다. 임시 정부 문항은 늘 이렇게 활용이 된다. 어쨌건 EBS 수능 특강을 공부했다면 해설지를 읽으며 이 부분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2) 자료/상황 활용

- 대표 문항 : 3번

자료/상황 활용 경우 3번, 4번, 7번, 13번 4문항이 출제되었다. 3번 문제는 수능 완성 모의고사 4회에 있는 3번 문항을 활용했다. 사실 이 문항은 거의 오래내서 갖다가 붙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연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문도 같고, 제시된 자료도 같고, 심지어 답지마저 같다. 이렇게 삼박자가 같은 연계 문항은 보기 드물다. 연계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의 문제로 보인다.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 대표 문항 : 20번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의 경우 1번, 2번, 5번, 14번, 20번 문항이 출제되었다. 20번 문제는 EBS 수능 완성 모의고사 5회 20번 문항을 활용하였다. 제시된 발문도 같고, 제시된 자료도 같고, 답지도 같다. 이 문항 역시 위에서 설명한 3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삼박자를 갖춘 연계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시작이라는 선지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선지인데 이렇게 연계가 되면 시험 현장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계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3번	EBS 수능 완성 153쪽 3번
<p>3. (가), (나)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3점]</p> <div><p>(가) 『속대전』과 『속오례의』 등을 편찬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탕평과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p><p>(나)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고, 정치 기강을 바로잡아 중앙 집권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p></div> <div><p>㉠ 신문고를 부활하였다.</p><p>㉡ 조세문신제를 시행하였다.</p><p>㉢ 군포 징수 제도를 개혁하였다.</p><p>㉣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p><p>㉤ 전국을 대상으로 양전을 실시하였다.</p></div>	<p>03 (가), (나)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div><p>(가) 속대전과 속오례의 등을 편찬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탕평과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p><p>(나)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고, 정치 기강을 바로잡아 중앙 집권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p></div> <div><p>㉠ 보기</p><p>㉡ 신문고를 부활하였다.</p><p>㉢ 서원의 폐단을 개혁하였다.</p><p>㉣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p><p>㉤ 군포 징수 제도를 개혁하였다.</p></div> <div><p>㉠ ㉡, ㉢ ㉡ ㉢, ㉤ ㉢ ㉣, ㉤</p><p>㉣ ㉤, ㉥ ㉤ ㉥, ㉦</p></div>
<p>[자료/지문 활용] 쌍둥이 문제다. 발문과 자료, 그리고 답지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평가원 연계 교재를 풀어 본 학생이라면 아주 쉽게 답지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p>	